가정간호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8년 8월 ISSN :1738-7590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25 No.2, 127-138, August, 2018 https://doi.org/10.22705/jkashcn.2018.25.2.127

간호창업에 대한 리터러시 고찰*

임지영[1] · 김주행[2] · 김슬기[3]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과거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기업의 저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창업이란 사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워,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제품 생산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제 주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1]. 오늘날 창업은 기술발전과 혁신, 수출 증대, 실업률 해소 등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2]. 이와 같은 창업의 중요성은 간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 만성 유병률 증가, 재가 환자의 증가, 급성기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는 간호창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창업을 하는 것은 간호창업가 개인의 목표 달성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3].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방문간호사업을 포함한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요양기관 및 너싱홈,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시설요양기관의 간호사 창업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현실화 되었다[4].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약 32만 명 정도에 이르지만 이 중 실제 취업하고 있는 간호사는 14만 2천명 수준으로 약 44%만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50%를 상회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활용이 간호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창업은 이러한 유휴 간호인력의 사회적 진출 확대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다[5]. 그러나 2013년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6.9%에 이르고 간호사 평균 근무기간은 약 8년으로[6], 국내의 간호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이직률과 짧은 재직기간으로 간호사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간호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취업이 이루어져, 졸업 후 곧바로 간호창업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병원 취업 후 임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이내 사직하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1.2%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퇴사 후 간호사로서의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력관리 경로의 제시도 요구되는 상황이다[7]. 이와 같이 간호계의 묵은 이슈인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활성화와 신규 간호사의 이직 후 사회적 진로 모색을 위해서도 간호창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어 : 간호, 간호사, 기업가정신, 리터러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No.NRF - 2017R1A2B4002266)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1-9561-4678)
2)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교신저자 E-mail: newegg79@gmail.com)(https://orcid.org/0000-0002-1637-9604)
3)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https://orcid.org/0000-0002-4211-0342)
투고일: 2018년 6월 9일 수정일: 2018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4일

간호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간호창업의 과정과 이에 영향하는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간호창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간호창업 모델은 곧바로 간호창업 교육과정의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간호창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의 간호창업에 관한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8]와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3] 등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연구도 간호 대학생의 개인적인 창업의지, 창업의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 관점에서의 간호와 경영 관점에서의 창업을 통합적으로 접목하여야 하는 간호창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 경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에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간호창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국내의 간호학부 과정에서의 간호창업 교육도 이제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간호창업 관련 연구문헌의 체계적인 고찰과 국·내외 간호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최근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웹 환경의 온라인 공개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에서의 간호창업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현 상황에서 간호창업의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간호창업 관련 리터러시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은 향후 간호창업 모델 개발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간호창업 관련 리터러시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각각의 주요 중심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간호창업 모델 개발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간호창업 관련 연구문헌을 분석한다.
- 국·내외 간호대학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한다.
- 국·내외 MOOC의 간호창업 관련 콘텐츠를 분석한다.

용어의 정의

●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9]. 리터러시는 일차적으로 시대적으로 혹은 그 사회 혹은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나, 현재는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창업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되어진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연구논문, 대학 홈페이지의 교과과정, 온라인 공개 교육 플랫폼인 MOOC의 기록물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연구논문, 교과과정, 콘텐츠 등 다양한 리터러시를 분석한 이차 자료분석연구이다.

리터러시 추출 및 자료수집방법

●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문헌

문헌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내에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검색을 수행하였다. 국내 문헌 검색은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학회마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국외 문헌 검색은 MEDLINE (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Online), Embase,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다. 문헌 추출을 위한 검색 기간은 간호창업이 사회, 경제적 현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또한 간호창업 관련 논의가 활성화된 계기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임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2017년 7월까지로 하였다. 문헌 검색은 2017년 7월 20일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어는 '간호학생', '간호사', '간호창업', '간호 스타트'로 수행하였으며, 국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어는 'Nursing'을 검색어로 한 후 'Entrepreneurship', 'Self employment', 'Start up'순으로 검색하여 최종 문헌을 추출하였다. 최종 문헌 검색 전략에 의해 검색된 문헌은 493편이었다.

문헌의 선택기준은 PICOS (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Study design)를 이용하되, 본 연구가 간호창업과 관련된 포괄적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연구대상(P)과 관심 중재(I)만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선택기준인 연구대상은 간호사 혹은 간호학생이고, 관심중재는 간호창업이다. 문헌의 배제기준은 동물실험 연구, 전 임상시험 연구, 원저가 아닌 연구,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헌이다.

문헌의 선정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10]을 참고하였다. 먼저 493편 중 중복 출판된 문헌 49편을 제외한 다음, 선

택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문헌을 제외하였다 다음 선택된 문헌의 원문을 검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문헌을 추출하였다. 이 때 각 단계마다 2명의 연구자가 선택기준과 배제기준에 근거하여 문헌의 포함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 한 후,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Kappa 계수로 산출하였다. 연구자가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는 전체 연구진이 함께 논의한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문헌의 선택과 배제를 결정하였다.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문헌선택에서 159편의 문헌이 배제되었고, 이때 평가자간 일치도는 Kappa .65이었다. 다음 원문을 검토한 문헌선택에서 201편의 문헌이 배제되었고, 이때 평가자간 일치도는 Kappa .91이었다. 끝으로 84편의 문헌 중 69편의 문헌은 단순 기사, 편집자 레터와 같이 연구논문으로 적합하지 않아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1편과 국외 14편의 문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Figure 1).

● 국내·외 간호대학 교과과정

국내 간호대학의 창업관련 교과과정 및 교과목 내용의 추출 및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은 2017년 5월에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국의 4년제 간호대학 204개 전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이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의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료수집하였으며, 강의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목에 대한 개요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총 204개의 대학교 중 13개의 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교과과정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조회 권한 제한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191개 간호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국외는 2017년 미국의 US (United States) News TOP 100에 랭크된 100개의 간호대학을 모집단으로 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nurse practitioner office 혹은 visiting nurses association과 같이 간호사의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간호대학의 석사과정에 MSN(Master of Science in Nursing)/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ual degree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등, 간호창업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어 벤치마킹 사례로 적합하다. 특히 US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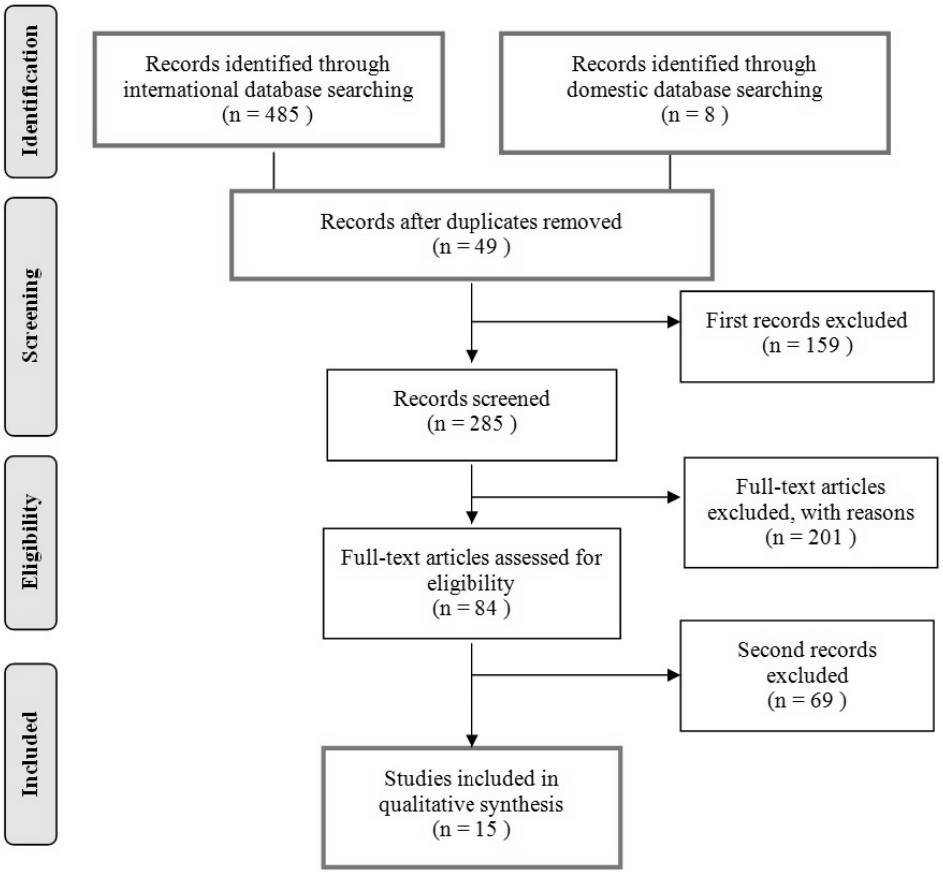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process

TOP 100에 랭크된 간호대학은 미국의 교육 분야에서 이를 선도해 나가는 대학이기에 TOP 100 간호대학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간호창업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미국은 간호관리 전공을 석사과정 이상에서 개설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최종 51개 간호대학의 대학원 교과과정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국내·외 간호대학의 홈페이지 검색은 2017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하였다.

● MOOC 콘텐츠

2017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외 MOOC인 Korea Open Course Ware (KOCW, www.kocw.net),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K-MOOC, www.kmooc.kr)와 Coursera (www.coursera.org)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MOOC는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교육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규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다양한 주제, 특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와 내용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간호창업과 관련한 학계, 업계, 개인의 사고와 인식, 성향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리터러시 자료원이다. MOOC 콘텐츠 검색은 '간호창업' 'Nursing', 'Health care', 'Entrepreneurship', 'Start-up'의 4개의 검색어를 이용하였다. 검색 결과 KOCW 1개, K-MOOC 1개, Coursera 1개, edX 3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다. 이 중 edX에서 검색된 콘텐츠 중 약물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한 2개 콘텐츠를 제외하여, 최종 4개의 간호창업 관련 콘텐츠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간호창업 관련 리터러시 자료분석은 각각의 자료 출처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국·내외 학술 DB (Data Base) 문헌의 일반적 사항은 출판년도, 출판유형,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연구수행국가의 5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연구 설계에 따른 상세분석으로, 질적 연구는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양적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변인, 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리뷰 및 종설은 현황, 문제점, 제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상세 분석은 내용분석으로 요약하였다.

국·내외 간호대학 교과과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개설 학점, 개설 학년, 이수구분의 3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다음 상세분석으로, 한국간호과학회에서 발간한 간호관리학 학습목표(2017)에 제시된 간호관리 과정의 5요소: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의 세부 학습목표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교과목 학습내용을 분석하였다[11]. 간호관리과정의 5요소는 우리나라 간호관리학 국가고시 학습목표 구성의 개념 틀이고,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외 여러 나라에서도 간호관리학 교과목 구성의 개념 틀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간호관리학의 소주제인 간호창업에 대한 내용분석의 틀로 적합하다.

MOOC 콘텐츠 분석은 교과목명, 학습시간, 학습주제의 3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연구논문, 교과과정,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일 대학 기관생명윤리심위위원회(170412-2A)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술 데이터베이스 문헌 분석

학술 DB 문헌 추출 결과, 간호창업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은 총 15편이었다(Table 1). 출판년도는 2006-2010년이 6편(4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2005년이 4편(26.7%), 2011-2015년이 3편(20.0%)이었다. 출판유형은 14편(97.8%)이 학회지 게재 연구논문이었다. 연구설계는 질적 연구가 8편(53.3%)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 연구 4편(26.7%),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art-Up Literatures (N=15)

Variable	n	Categories	n(%)
Published year	15	2000-2005	4(26.7)
		2006-2010	6(40.0)
		2011-2015	3(20.0)
		2016-2017	2(13.3)
Type of study	15	Doctoral dissertation	1(2.2)
		Journal	14(97.8)
Research design	15	Qualitative	8(53.3)
		Quantitative	4(26.7)
		Review	3(20.0)
Subject	12	Nurse or Nurse specialist	7(58.3)
		Nursing entrepreneur	2(16.7)
		Nursing student	1(6.6)
		Others	2(16.7)
Nation	12	United States of America	4(33.3)
		Canada	3(25.0)
		Australia	1(8.3)
		United Kingdom	1(8.3)
		Finland	1(8.3)
		Brazil	1(8.3)
		Korea	1(8.3)

리뷰 및 종설연구 3편(20.0%)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리뷰 및 종설연구 3편을 제외한 총 12편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7편(58.3%)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창업가 2편(16.7%), 간호대학생 1편(6.6%)의 순이었다. 연구수행 국가는 미국 4편(33.3%), 캐나다 3편(25.0%)으로 많았고, 그 외 한국, 브라질, 핀란드, 호주, 영국 등도 각각 1편(8.3%)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에 따른 상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간

<Table 2> Summary of Nursing Start-Up Literatures According to Research Design

Design	Authors (year)	Subject	N	Category (Number of citation)	Main Finding (Number of citation)
Quali-tative	Sharp et al. (2014)	Nurse practitioner	24	Motivation (6)	Making a difference & innovation (3) Autonomy (2) Expending scope of nursing practice (2) Health care system change (2)
	Wall (2013)	Nurse	20		
	Wall (2013)	Nurse	20	Difficulty (7)	Acceptance of role change (4) Lack of legal knowledge (4) Conflict with others in community (4) Lack of business & finance competency (3) Lack of public awareness (3)
	Wall (2014)	Nurse	20		
	Elango et al. (2007)	Health administrator nurse entrepreneur nursing school dean nurse practitioner student	24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3)	Accountability (2) Risk taking (2)
	Austin et al. (2006)	Clinical nurse specialist	8		
	Caffrey et al. (2005)	Nurse entrepreneur patient	13	Required education & skill (5)	Management skill (4) Business know-how (2) Customer service development (1) Network (1)
	Wilson et al. (2003)	Nurse	59		
Quanti-tative	Cadmus et al. (2017)	Advanced practise nurse	372	Predict factor (4)	Intension to business Entrepreneurship Support start-up education
	Andrade et al. (2015)	Nursing company	196		
	Sankelo et al. (2008)	Nurse entrepreneur	84	Competency development (2)	Low level: healthcare structure financial management High level: networking personal initiative
	Lee (2016)	Nursing student	510	Nursing service development (1)	nursing activities, education, consulting, healthcare equipment
Review	Drennan et al. (2007)	integrative review	-	Influence factor (3)	Autonomy (3) Quality of care (2) Desire making difference (2)
	Shirey et al. (2007)	integrative review	-	Advantage (2)	Flexible hours (3) Freedom (2) Caring family members (2)
				Challenge (2)	Lack of network (2) Lack of business skill & knowledge (2) Limited education (2)
	Wilson et al. (2003)	integrative review	-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2)	Taking responsibility (2) Planning (2) Flexibility (1) Self-confidence (1)
				Outcome (1)	Making nursing difference, expert status desired life style, role model
				Business area (1)	Ambulatory area, home care, case management, community service

<Table 3> Summary of Nursing Start-Up Curriculums

Variable		Korea n(%)		USA n(%)
		Under graduate	Graduate	Graduate
Credit	1	15(27.3)	0(0.0)	1(3.8)
	2	32(58.2)	0(0.0)	6(23.1)
	3	2(3.6)	4(100.0)	13(50.0)
	4	2(3.6)	0(0.0)	6(23.1)
	Others	4(7.3)	0(0.0)	0(0.0)
Grade	1~2	23(41.8)	0(0.0)	0(0.0)
	3~4	28(50.9)	0(0.0)	0(0.0)
	Others	4(7.3)	0(0.0)	0(0.0)
Course	Major requisite	1(1.8)	0(0.0)	0(0.0)
	Major elective	22(40.0)	4(100.0)	26(100.0)
	General requisite	11(20.0)	0(0.0)	0(0.0)
	General elective	16(29.1)	0(0.0)	0(0.0)
	Pass/Fail	1(1.8)	0(0.0)	0(0.0)
	Others	4(7.3)	0(0.0)	0(0.0)

호창업관련 질적 연구는 8편으로 핵심주제는 간호창업의 동기, 창업과정의 어려움, 간호창업가의 성격 특성, 간호창업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었다. 간호창업의 동기는 6편의 문헌에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화와 혁신이 3편, 자율성의 확보, 간호 분야의 확장, 의료시스템의 변화 각각 2편에서 제시되었다. 창업과정의 어려움은 7편의 문헌에서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창업으로 인해 변화된 역할의 범위를 수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 법률과 제도와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 인력과의 협업에서의 겪는 역할갈등이 4편의 문헌에서, 간호지식 외에 비즈니스와 재무관리 역량 부족의 어려움과 대중의 인식 부족이 3편의 문헌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간호창업가의 성격 특성은 3편의 문헌에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감, 위험감수 성향이 각각 2편의 문헌에서 제시되었다. 간호창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은 5편의 문헌에서 제시하였으며, 각각 관리역량 4편, 비즈니스 노하우 2편, 간호창업의 서비스 개발 1편, 네트워크 구성 1편이었다.

간호창업관련 양적 연구는 4편으로 상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4편의 연구에서 간호창업 예측요인, 2편의 연구에서 간호창업 역량 개발, 1편의 연구에서 간호창업 서비스 개발이 제시되었다. 세부분석에서 먼저 간호창업 예측요인에서는 사업지향성,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지원이 제시되었다. 간호창업 역량 개발에서는 14개의 간호창업 역량 중 의료제도의 이해와 재무관리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간호창업 서비스 개발에서는 간호처치, 간호 교육, 자문, 간호용품 개발이 제시되었다.

리뷰 및 종설에서는 주로 간호창업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 간호창업의 영향요인, 강점요인, 장애요인, 간호창업가의 성격특성, 간호창업의 성과 및 간호창업의 영역 등이었다. 간호창업의 영향요인은 자율성의 확보가 3편, 질 높은 간호의 제공이 2편, 변화의 추구가 2편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간호창업의 강점요인은 탄력적인 시간의 활용이 3편, 업무의 자율성이 2편, 육아 등 가족 구성원을 케어 할 수 있음이 2편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간호창업의 장애요인은 네트워크의 부족이 2편, 비즈니스 기술과 지식 부족이 2편, 제한된 교육이 2편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간호창업가의 성격 특성은 책임의 감수가 2편, 기획력이 2편, 유연성이 1편, 자기 신뢰가 1편의 연구에서 각각 제시되었다. 간호창업의 성과는 1편의 연구에서 간호의 차별화, 전문가로서의 지위 향상, 원하는 삶의 방식 구현, 역할 모델로 제시되었다. 간호창업의 영역은 1편의 연구에서 외래간호, 가정간호, 사례관리, 지역사회서비스로 제시되었다.

간호대학 교과과정 분석

국내·외 간호대학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학점은 2학점이 32개(58.2%), 1학점이 15개(2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구분에서는 교양과목이 27개(49.1%), 전공과목이 23개(41.8%), Pass/Fail과목이 1개(1.8%)로 파악되었다. 교과목 개설 학년은 3~4학년이 28개(50.9%), 1~2학년이 23개(41.8%)이었다.

국내 간호대학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총 4개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모두 3학점으로 운영되었다. 미국 간호대학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총 26개의 간호창업 관

<Table 4> Summary of Nursing Start-Up Curriculums

Contents		Under graduate n(%)	Graduate n(%)	
			Korea	USA
Planning	Financial management	0(0.0)	0(0.0)	49(22.6)
	Marketing	1(1.8)	0(0.0)	17(7.8)
	Business planning	19(33.9)	0(0.0)	8(3.7)
	Communication	0(0.0)	0(0.0)	3(1.4)
Organization	Role management	2(3.6)	0(0.0)	4(1.8)
	Health care system	0(0.0)	0(0.0)	10(4.6)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0(0.0)	0(0.0)	10(4.6)
Directing	Leadership	0(0.0)	0(0.0)	34(15.7)
	Leadership practice	0(0.0)	0(0.0)	15(6.9)
Control	Quality and safety	0(0.0)	0(0.0)	10(4.6)
	Quality improvement	0(0.0)	0(0.0)	8(3.7)
Others	Nursing informatics	1(1.8)	0(0.0)	25(11.5)
	Health policy	0(0.0)	0(0.0)	20(9.2)
	Entrepreneurship	6(10.7)	0(0.0)	4(1.8)
	Start-up	12(21.4)	2(50.0)	0(0.0)
	Start-up practice	2(3.6)	0(0.0)	0(0.0)
	Nursing business	12(21.4)	2(50.0)	0(0.0)
Total		55(100.0)	4(100.0)	217(100.0)

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3학점이 13개(50.0%), 2학점과 4학점 이상이 6개(23.1%), 1학점이 1개(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세분석에서 간호관리과정의 5요소를 기반으로 국내·외 간호대학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목의 학습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먼저 학부 교과과정에 개설된 총 55개의 교과목 학습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획과 관련된 학습내용은 비즈니스 기획이 19개(33.9%)로 가장 많았다. 조직과 관련된 학습내용은 역할관리가 2개(3.6%)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관리과정의 5요소 이외의 학습내용으로는 창업개론과 간호경영이 12개(21.4%)로 가장 많았고, 다음 기업가정신이 6개(10.7%), 창업실습이 2개(3.6%)의 순이었다.

국내 간호대학 대학원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목의 학습내용은 창업개론 2개(50.0%), 간호경영 2개(50.0%)이었다. 반면, 미국 간호대학 대학원의 간호창업 관련 교과목의 학습내용 분석에서는 기획에서 재무관리가 49개(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 마케팅 17개(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에서는 의료관리체계가 10개(4.6%)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관리는 인력관리가 10개(4.6%)로 파악되었다. 지휘에서는 리더십이 34개(15.7%)로 가장 많았고. 다음 리더십실습이 15개(6.9%)이었다. 통제에서는 질 관리와 안전이 10개(4.6%), 질 향상이 8개(3.7%)의 순이었다. 이 외에 간호관리과정 5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학습내용으로는 간호정보가 25개(11.5%), 의료정책이 20개(9.2%), 기업가정신이 4개(1.8%)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MOOC 콘텐츠 분석

국내·외 온라인 공개 강의 데이터베이스인 MOOC의 간호창업 관련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KOCW에서 '간호경영과 창업', K-MOOC에서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Coursera에서 'Healthcar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X에서 'Innovating in Health care' 총 4개의 콘텐츠를 추출하였다. 각 콘텐츠의 학습 모듈 구성은 6 모듈에서 15모듈까지 이었고, 주요 학습내용은 기업가정신이 4개(21.1%), 창업과 헬스케어, 비즈니스 기획, 헬스케어와 과학기술, 헬스케어와 혁신이 각각 3개(15.8%), 그리고 마케팅이 2개(10.5%), 재무관리가 1개(5.3%)로 파악되었다.

논 의

간호창업에 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간호창업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육은 새로운 21세기형 직업교육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2,12], 간호에서도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의 새로운 활동의 한 분야로 간호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창업 교과과정의 개발과 향후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간호창업관련 리터러시를 분석하였다.

<Table 5> Summary of Nursing Start-Up Contents in MOOC*

Title	Length (weeks)	Contents	
		Theme	n(%)
Nursing business & start-up	11	Entrepreneurship	4(21.1)
		Start-up and health care	3(15.8)
Start-up changing world	15	Business planning	3(15.8)
		Marketing	2(10.5)
Healthcare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6	Healthcare and technology	3(15.8)
		Healthcare and innovation	3(15.8)
Innovation in health	9	Finance	1(5.3)
Total			19(100.0)

*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간호창업 연구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간호창업 연구의 58.3%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주로 전문간호사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창업 연구는 그 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며, 정책적 지원 및 시장 환경과 밀접히 관련된다[13]. 따라서 간호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제도 및 국가 내에서 간호창업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3].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미국 혹은 유럽과는 다른 보건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간호창업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간호창업의 장애요인으로 간호창업으로 인한 새로운 역할 수용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는데[14-16], 간호창업은 그 특성상 간호창업자로 하여금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마인드에서 관리자, 기업가 중심의 마인드로의 역할 확장을 요구하기에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12].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역할모델의 제시와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17,18]. 간호창업에서도 새로운 역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 간호창업 모델과 간호창업자의 역할모델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이는 간호창업의 장애요인 중 하나인 대중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동기요인으로 제시된 간호창업의 강점, 비전 공유 및 창업 문화의 확산을 통해 간호창업의 토대가 되는 기업가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창업을 위해 극복해야 할 선행요인으로 법률과 의료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비즈니스 및 재무관련 역량 부족 등을 다수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13,19-21]. 또한 창업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과 교육수준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창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경영관리, 재무, 법률 및 관련 제도에 초점을 맞춘 교과과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간호창업가 개인의 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의 동기요인, 장애요인, 강점 및 간호창업가의 성격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간호창업 실행에 있어 요구되는 의료제도의 이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외부요인의 분석과 같은 간호창업의 외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다소 미흡하였다. 따라서 보편적인 창업의 과정과 더불어 각 나라별 제도와 보건의료 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간호창업가의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간호창업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간호창업 모델의 개발은 이에 대한 검증과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창업 실무 확대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 연구 분석에서는 간호창업의 동기, 창업과정의 어려움, 간호창업가의 성격 특성, 간호창업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핵심 주제로 도출되었고, 양적 연구 분석에서는 간호창업 역량과 사업지향성,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지원이 제시되었다. 리뷰 및 종설에서는 간호창업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호창업의 영향요인, 강점요인, 장애요인, 간호창업가의 성격 특성, 간호창업의 성과 및 간호창업 영역이 제시되었다. 간호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요구되며, 간호창업으로 인한 고객 측면, 건강증진 측면, 의료제도 측면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문헌을 통해 파악된 간호창업 모델의 구성요인은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의료제도 및 사회, 제도적 환경 속에서 간호창업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실증적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국내·외 간호대학 교과과정 분석에서는 국내의 학부과정에서는 2학점으로 개설된 경우가 과반 이상이었으며, 이수 구분에서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개설이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의 학부과정에서 간호창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간호대학은 전체 26%로, 간호창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따라 과거보다 관련 교과목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의 부족, 전공과목 보다는 교양과목의 형태의 개설, 창업실습 과목의 부족 등은 여전히 창업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도 파악되었다[20]. 이는 아직 간호창업에 대한 학부 교육이 초

기 단계임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간호창업교육이 간호창업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간호창업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이의 확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 교과과정 분석 결과에서는, 국내에서는 석사과정에 3학점의 전공과목으로 간호창업과 창업 경험에 초점을 총 4개의 교과목만이 개설되어 대학원에서의 간호창업 교육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대학원에서는 창업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많은 창업 간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즈니스 및 재무관리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19] 재무관리, 리더십, 마케팅, 간호정보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MBA/MSN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심화된 재무계획 및 분석과 원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좀 더 실효적인 창업교육을 위해 경영대학과 협력하여 미국의 헬스케어 창업의 특징을 반영한 세분화되고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ung [22]은 석사수준에서는 창업의 개시단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대학원 과정에서 소수의 간호창업 교과목으로 실제적인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이며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에 우리나라 간호대학원의 교과과정 내에 간호창업과 간호경영을 세부 전공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종합하면, 학부에서는 간호창업의 중요성과 관심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초점에 맞춘 간호창업의 기초과목을 개발하고, 상위과정인 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 기초를 닦는 간호창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간호창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 즉 재무관리, 경영관리, 의료제도분석, 관련 법률의 이해 등에 초점을 맞춘 상급 수준의 간호창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MOOC에 제시된 간호창업 관련 콘텐츠 분석 결과에서는, 간호창업 콘텐츠는 총 4개로 평균 10 모듈의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학습내용은 기업가정신, 창업과 헬스케어, 비즈니스 기획 헬스케어와 과학기술, 헬스케어와 혁신으로 파악되었다. MOOC의 콘텐츠는 학부 및 대학원의 정규 교과과정과는 달리 좀 더 시기적절한 이슈와 맞물린 창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MOOC의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매개로 건강관련 IT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간호창업 확대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현재 MOOC의 콘텐츠 중 간호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는 소수였으나, MOOC의 학습방식이 자기주도형 학습이고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23]. 따라서 MOOC의 콘텐츠를 정규 간호창업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사전학습 또는 보충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그 동안 정규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육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 및 재무관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내용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반영하는 간호창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간호창업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창업과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 간호관리학 전공 교수, 임상 간호관리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견인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간호학회와 간호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창업 이론과 실무 양쪽의 역량을 균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간호창업가와 연계한 간호창업실습을 통해 창업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간호창업에서의 역할 수용의 어려움에 대한 지지체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또한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간호창업의 동인, 어려움, 간호창업에서의 요구되는 역량 및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호창업의 관련 변인으로 자기 신뢰, 사업지향성,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지원 등이 파악되었다. 국내 간호창업 관련 교과과정 분석 결과, 55개의 대학교에서 간호창업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학습내용은 경영 기획과 간호경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재무관리, 마케팅, 경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창업 관련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공개 강의인 MOOC이 간호창업 교과과정을 보완하는 교육매체로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호실무 현장과 미래 간호사의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세분화, 전문화 및 체계화된 항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간호 창업이라는 간호의 새로운 영역 개척과 업무 분야 확대로 간호사의 역할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창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 간호창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교과과정,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폭넓게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간호창업 교과과정 개발과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창업 관련 요인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변화, 의

료관리체계의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을 반영한 간호창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아울러 간호창업가를 육성함에 있어 특히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요구되며, 간호창업으로 인한 고객의 측면, 건강증진의 측면, 그리고 의료제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국가와 의료제도 안에서의 간호창업 모델과 이의 영향 요인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간호창업에 다양한 리터러시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논문과 교과과정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과과정 및 개요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므로 교과과정 자료를 충분히 게제하지 않는 교과과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한계점이 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Kim MA. A study of nursing activities for breast-feeding support & patient's satisfaction at postpartum.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3;8(2):5-21.
2. Lee JH. The influence of personal traits, university and social supports on student's startup intention.[dissertation], Kyeongbuk: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2013. p.1-45.
3. Lee OJ. A Predictive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Jeonbuk: Jeonbuk University; 2016. p.1-4.
4. Kim MH. Roles of visiting nurses defined based on long-term care insurance regul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9;23(2):232-50.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rsing staff support measures for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2015. http://www.mohw.go.kr/m/noticeView.
6. Jeong EJ, Chae GS, Noh WJ, Park MM, Cho UY, Kim HJ. A survey on hospital nursing staffing. Business report for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3.
7.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tudy the real state of the hospital nurses arrangement situation [Internet].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6 [cited 2017 November 24]. Available from: https://www.khna.or.kr
8. Lim JY, Kim KM, Ko GJ.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personality traits, and need for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6):3361-3377.
9. Naver.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internet]. Seoul: Naver; 2018 [cited 2018 July 19].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
10.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 2009;6(7):1-6.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097
11.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 Learning objectives for nursing students [Internet]. Seoul: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 [cited 2017 December 28]. Available from: http://www.kanad.or.kr/
12. Kim SW, Kang CW, Lee WS. The impact of 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business program on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ap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5):2627-2636.
13. Wilson A, Averis A, Walsh K. The influences on and experiences of becoming Nurse entrepreneurs: a delphi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3;9(4):236-245. https://doi.org/10.1046/j.1440-172X.2003.00426.x
14. Sankelo M, Akerblad L. Nurse entrepreneurs' attitudes to management, their adoption of the manager's role and managerial assertivenes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008;16(7):829-836. https://doi.org/10.1111/j.1365-2834.2008.00917.x
15. Wall S. Nursing entrepreneurship: motivators, strategies and possibilities for professional advancement and health system change. Nursing Leadership. 2013;26(2):29-40. https://doi.org/10.7939/R3VF1G
16. Wall S. Self-employed nurses as change agents in healthcare: strategies, consequenc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Healt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2014;28(4): 511-531. https://doi.org/10.1108/JHOM-03-2013-0049
17. Byabashaija W, Katono I, Isabalija R. The impact of college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in uganda.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2011;16(1)127-144. https://doi.org/10.1142/S1084946711001768
18. Leffel H.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From cape town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2008 July 27-31;Cape Town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EEE; 2008. p. 755-763. https://doi.org/10.1109/PICMET.2008.4599682
19. Cadmus E, Johansen ML, Zimmer PA, Knowlton DL. Entrepreneurship: assessing the readiness of the New Jersey APN workforce.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017;41(1):48-55. https://doi.org/10.1097/NAQ.0000000000000203
20. Elango B, Hunter GL, Winchell M. Barriers to nurse entrepreneurship: a study of the process model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2007;19(4):198-204. https://doi.org/10.1111/j.1745-7599.2007.00215.x

21. Wilson A, Averis A. Facets of private practice Nursing: A conceptual model. Royal College of Nursing Australia. 2002;9(2):6-21.https://doi.org/10.1016/S1322-7696(08)60411-4
22. Jung JS, Min KS.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f business institutions education program : focused on the graduate school curriculum.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2007;17(1):201-225.
23. Moule P, Ward R, Lockyer L. Nursing and healthcare students' experiences and use of e-learning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0;66(12):2785-279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10.05453.x
24. Sharp DB, Monsivais D. Decreasing barriers for nurse practitioner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Practitioners. 2014;26(10):562-566. https://doi.org/10.1002/2327-6924.12126
25. Wall S. "We inform the experience of health": perspectives on professionalism in nursing self employ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13;23(7):976-988. https://doi.org/10.1177/1049732313490077
26. Austin L, Luker K, Roland M. Clinical nurse specialists as entrepreneurs: constrained or liberate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6;15(12):1540-1549. https://doi.org/10.1111/j.1365-2702.2006.01576.x
27. Caffrey RA. Independent community care gerontological nursing: becoming an entrepreneur.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005;31(8):12-17. https://doi.org/10.3928/0098-9134-20050801-09
28. Andrade AC, Dal Ben LW, Sanna MC. Entrepreneurship in nursing: overview of companies in the state of Sao Paulo.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2015;68(1):35-39. https://doi.org/10.1590/0034-7167.2015680106p
29. Drennan V, Davis K, Goodman C, Humphrey C, Locke R, Mark A, et al. Entrepreneurial nurses and midwives in the united kingdom: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7;60(5):459-469.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58.x
30. Shirey MR. An evidence-based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in nursing. Clinical Nurse Specialist. 2007;21(5):234-240. https://doi.org/10.1097/01.NUR.0000289748.00737.ef

Review of Nursing Start-Up Literacy*

Lim, Ji Young[1] · Kim, Juhang[2] · Kim, Seulki[2]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present status of start-up literacy. **Methods:** The study selected literature from KoreaMed,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Ovid-MEDLINE (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Online), Embase, and Cochrane Library DB. Start-up curricula were collected from the homepage of nursing schools in Korea and the USA. Their contents were searched using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platforms; KOCW, K-MOOC, and Coursera. **Results:** Fifteen articles were selected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main themes of nursing start-up were "driver," "barrier," "required competenc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The courses contained business planning, finance, marketing,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The main contents of MOOCs were similar.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to develop multi-scope nursing start-up education programs. Nursing start-up models integrated with appropriate business knowledge and skills in health care settings are needed.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to design start-up education programs in nursing.

Key words : Nursing, Nurse, Entrepreneurship, Literac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Mid-career Researcher Program of Basic Research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o. NRF-2017R1A2B400226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uhang*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22212. Republic of Korea
Tel: 82-32-860-8218 Fax: 82-32-882-6578 E-mail: newegg79@gmail.com